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고난주간새벽기도회 ◎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 일시 - 3월 29일(월)~4월 3일(토) 새벽 5시 * 강사 - 조상용 담임목사

◎ 2021년 대전시 부활절연합예배 ◎

"부활의 생명으로 이땅을 고치소서"

* 일시 - 4월 4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 하늘문교회
* 설교 - 조상용 담임목사 * 주최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모임]

1. 정기당회 - 오늘 주일 3부 예배후 / 당회실

[알림]

1. 성령주일 -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 / 오늘 주일 2, 3부 예배 시
2. 부활주일 - 다음 주일(4월 4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3. 목요영성기도회 - 고난주간새벽기도회로 인해 쉽니다.

[교우 동정]

1. 결혼 - 3교구 민윤기 성도, 이선희a 집사(가양3-1) 장녀 민들레 자매
4월 3일(토) 낮 12시 / 유성 라도무스아트센터 1층 아시시홀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전상순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3. 28 (NO. 63-13)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종려주일 / 성령주일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전승영 집사(1부) / 이원명 장로(2부) / 송경호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시 13:1-6
학습·세례 설교	시편의 묵상(13편): 믿음의 한계를 믿음의 단계로 극복하기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363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 오후 4:00 성경읽기예배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다현 자매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창 26:12-33 “세상 앞의 그리스도인(2)”	* 찬양: 주찬양 찬양단 * 기도: 안장현 집사 * 인도: 고윤설 목사 * 성경: 행 21-24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김영희 집사(1부) 양현주 집사(2부)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창 4:16-26 “세상 앞의 그리스도인”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고난주간새벽기도회	고난주간새벽기도회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심재성 집사	안내위원		
	2 부	송경호 장로			
	3 부	윤종명 장로			
주일새벽	금 주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윤상덕 집사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우희정 임춘수	
	1 부	김정식 집사			
수요일예배	2 부	오명숙 집사	차량운행	2호/ 이본규 집사 010-8281-3779 3호/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부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9일)	최정숙 고한례 최영희 장영애
화 (30일)	송정숙
수 (31일)	공종호
목 (1일)	안중근 국은희 서정자
금 (2일)	이연옥 임명숙
토 (3일)	이종옥 이은진b 송순례
주일 (4일)	전용주 권연옥 임명숙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28일(주일)	29일(월)	30일(화)	31일(수)	1일(목)	2일(금)	3일(토)
성경	신13-15	신16-18	신19-21	신22-24	신25-27	신28-30	신31-33

♠ 꽃꽂이

* 금주: 안재택 집사, 안재선 집사(대경 ENG) * 내주: 전용주 장로, 권연옥 권사

♠ 환우

☞ 1교구

* 김병출 성도(남1-1, 류순례 권사 남편) - 뇌출혈 / 을지병원

☞ 2교구

* 이서경 집사(한신2) - 어깨인대 수술 / 둔산동 탄탄병원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 역 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 숙 한 성 도 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 도 헌 신 자 훈 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임지희 오/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김영미 오/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4월 행사 안내

* 29일(월)~4월3일(토) / 고난주간

* 4일(주일) / 부활주일

* 12일(월) / 동대전제일노회 정기회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는 좌석 30%이내 대면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성경기도회는 좌석 3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도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신평선교회(SMI) · 일본가파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교타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동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시편의 묵상(12편):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사는법(사12:1~8)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근거 없는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의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다윗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시대를 탄식하십시오.

(1-2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 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자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거짓과 아첨이다. 이 거짓말의 기원은 사탄이다. 그러기에 거짓말이 판치는 오늘날의 모습을 단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사탄은 이러한 교회 안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기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영적 흐름을 감지한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득세하게 될 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탄식이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자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신다.

2.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2-4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알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한다. 그들의 특징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서 퍼뜨리는 자다. 악한 영에 사로 잡혀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고, 없던 것을 있다고 말하고, 헛것을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아첨하지 못한다. 두 마음이 없다. 언제나 겸손하다. 이들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그러기에 경건한 자들은 단번에 거짓인 것을 알 수 있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을 분별한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십시오.

(6-7절)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는 그만큼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 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고, 거짓에 잘 휘둘리지 않게 된다.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고 거짓이 판을 치는 때에,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 같이 고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겼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일(금)	찬 299장 신 29:14-21	성경읽기 신 28-30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떠나서
-------	----------------------	------------------	-----------------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들에게 생길 것을 염려합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받을 진노와 언약의 저주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평안과 복을 바라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처럼 죄악은 독초의 뿌리와 같이 은밀하게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퍼지고, 파괴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무서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쓴 뿌리가 생겨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은밀한 죄악은 반드시 회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일(토)	찬 312장 신 34:1-12	성경읽기 신 31-34장	여호와의 종 모세
-------	---------------------	------------------	-----------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야 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은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모압에서 죽었지만,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지혜와 영성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한 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세의 태도와 마음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칭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닙니다. 끝까지 여호와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복받게 됐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4일(주일)	찬 623장 마 6:5-8	성경읽기 마 1-3장	하나님께로만 향한 기도
--------	-------------------	----------------	--------------

구제(헌금)와 기도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을 얻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나 기도는 이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그 경건함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자선을 베풀 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0대 자선가’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관에 구제물품 전달한 후에는 꼭 사진을 찍고 이름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영광을 받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금 나는 내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오늘도 깨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곽영옥 김경덕(이수진a) 김균영 김덕현(하점순) 김동윤(이연옥)

김동춘(유덕자,김은지) 김연수 김옥단(유가람) 김인숙 김혜숙(강길석) 남상천(김선희)

도소재 박숙희 박옥자 박용일(김순희c) 박이자 박종보 서호석(김민희)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송순례 순찬호(이영숙b) 심윤우 심윤중 양승희

오상옥(김진남) 유영삼(권민숙) 유창웅(김정식) 윤명심(이상규) 윤종명(전숙인)

이남희 이수진b(민병곤) 이은희 이종훈 이지연a 이춘자a 이형두 장지이

정경희(최태호) 정상남(이은숙) 정수진(조관희) 조규연(서정순b) 최순임(김미숙)

최영애 최윤희 함수경 황경숙(임은미) 황덕순(김기환) 황안순 황현숙

감사헌금

강은자 고윤설(박혜란) 김균영 김두경(김경선) 김신(맹경연) 김영준 김영천(남정혜)

김정례 김정임 김중현 김태순 박봉식(김영숙) 박정자b 서문복선 순정숙 신순옥

신윤석(이지혜) 안영세(한혜숙) 양명자 양승희 오상옥(김진남) 유승숙 유춘성

이길천(윤석의) 이남희 이덕성 이수진b(민병곤) 이순예 이여진 이형두

임몽룡(양홍순) 전기숙 정기조(이종옥) 정순애(장영수) 조상용(김혜경) 조화연 최순임

최영란a(박민지) 최진수 하용호(문희정) 무명2

선교헌금

강병우 공종호 곽영옥 권영숙 김길주(박순자a) 김덕현(하점순) 김동춘 김영미 김영희

김옥단 김은현(이인옥) 김장식(김미숙) 남분자 도소재 박숙희 박이자 박희인

서기홍(하복임) 송낙수(송정숙,송태준,송태양) 송봉우 송순례 송순헌 송주현

순찬호(이영숙b) 양길용 양승희 양영준(서영순) 오상옥(김진남) 유덕자 유은정

유창웅(김정식) 윤종명(전숙인) 윤지우 이기철a 이남운(한도희) 이동영 이상미

이수진b 이은숙 이종훈(이지연a) 이지영(이상규) 이창익 이형두 장영수(정순애)

장영애 정기조(이종옥) 정상남 조성일 최민지 최순임(김미숙) 최윤희 최재민 최준명

하상균(김명희) 현성주 황경숙 황현숙 4남전도회 5남전도회 6남전도회 6여전도회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9일(월)	찬 205장 신 17:14-20	성경읽기 신 16-18장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	----------------------	------------------	-----------------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왕의 통치하에서 나라가 운영되는 왕정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였는데,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왕정 체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럴 경우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방의 왕들이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 병마를 늘리고, 주변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맹국과 정략결혼을 하고, 은과 금을 늘리는 것은 당시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최고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삶의 영역을 정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30일(화)	찬 200장 신 18:15-22	성경읽기 신 19-21장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	----------------------	------------------	-------------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는 참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모세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도 있음을 주의시킵니다. 모세는 그들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증거도 없고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살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 선지자 행세하며 미혹하는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는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1일(수)	찬 70장 신 22:1-8	성경읽기 신 22-24장	반드시 형제를 도와
--------	-------------------	------------------	------------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옷을 구별해 입어야 하고, 한 밭에 두 씨를 뿌리는 것과, 소와 나귀에 함께 멍에를 메워 밭 가는 것을 금했으며, 종류가 다른 실을 사용해 옷을 만들지도 말라는 규정까지, 혼합된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섞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혼합주의를 속아 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민감한 영적 안목을 장착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 분별하고, 제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일(목)	찬 213장 신 26:16-19	성경읽기 신 25-27장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라
-------	----------------------	------------------	------------------------------------

모세는 안식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 되는 해에 걷는 십일조는, 레위인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합니다. 백성은 이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절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제를 위한 십일조를 구별해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통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의무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나눴의 정의를 실현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족속처럼 개인의 풍요와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연약한 이웃과 더불어 살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聖民)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뜻을 다해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